

아유르베다(Ayurveda)의 기원에 관한 연구

김진희^{1,2}, 한창현¹, 안상우¹

¹한국한의학연구원 전통의학정보연구본부 문헌연구센터, ²경희대학교 의과학교실

Research on the Origin of Ayurveda

Jinhee Kim^{1,2} Changhyun Han¹ Sangwoo Ahn²

¹TKM Information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²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Ayurveda is an Indian traditional medicine coming down from ancient times. In the past, it was propagated with Buddhism, and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medicine in East Asia. At present, it is getting a lot attention as an alternative medicine. A variety of researches on ayurveda are being done all over the world, but its domestic research situation is still insignificant, especially rare to find any consideration about its origin. Accordingly, this research arranged and considered the contents on the origin of ayurveda that have already been discovered.

The origin of ayurveda can be reviewed roughly in three aspects. First, at a mythological viewpoint, it's possible to trace the origin of ayurveda from Brahma which is described as a fount of all sciences and also the Ruler of the Universe.

According to 『Sushruta Samhita』 and 『Charaka Samhita』, Brahma made 100,000 gāthā in 100 chapters, and then reduced them to 8 lessons.

Next, tracing documentary origin, ayurveda is known to originate in veda-Aryan's sanctuary, especially Atharva veda. However, practically considered, the present ayurveda can be judged to form from the 3 major classics in the Brahman period- 『Charaka Samhita』, 『Sushruta Samhita』, 『Ashtanga Sangraha』, of which 『Charaka Samhita』 is the most ancient and prestigious literature.

Lastly, a lot of scholars are explaining the ancient Indian civilizations in connection with ayurveda at a historical viewpoint as "a 5-thousand-year-old history", but ayurveda originated in Aryan's sanctuary-veda; thus, it's impracticable to include the Indian medicine before their migration to India in the origin of ayurveda.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scholars to do research by distinguishing the ancient Indian medicine before veda from ayurveda.

keywords : Ayurveda, Ancient Indian Medicin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Veda, Samhita

I. 서 론

아유르베다는 고대로부터 이어 내려온 인도전통의학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가운데 하나이면서

또한 현재까지 행해지는 의학체계이기도 하다. 아유르베다(Ayurveda)는 어원적으로 ‘생명’ 또는 ‘장수’를 뜻하는 'Ayus'와 ‘과학’, ‘지식’, 또는 ‘지혜’를 뜻하는 'Veda'가 결합되어 ‘생명의 과학’ 또는 ‘장수의 지혜’를 의미한다. 즉 생명의 학문 혹은 이것으로 건강과 장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되었다.¹⁾

접수 ▶ 2010년 11월 8일 수정 ▶ 2010년 11월 23일 채택 ▶ 2010년 11월 30일
교신저자 안상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83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042-863-9442 Fax 042-863-9463 E-mail answer@kiom.re.kr

1) Jan Van Alphen, Anthony Aris. 『Oriental medicine: an illustrated guide to the Asian arts of healing』. p.21 참고

아유르베다는 인도에서 유래하여 발전한 전통의학 중 하나²⁾이지만, 인도 내에서만 통용된 것은 아니었다. 과거에는 불교와 함께 전파되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의학에 큰 영향을 주었고, 서쪽으로는 그리스 의학에 접목되어 유나니 의학을 탄생시켰으며, 현재는 대체의학으로서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아유르베다에 대해 세계적으로 다방면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 이전의 논문들은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여 짧은 고찰들과 함께 체질에 대한 연구 1편과 학위논문으로는 유일하게 박중운의 박사학위논문 1편이 있었을 뿐이었다.³⁾ 그 중 박중운의 논문은 아유르베다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한의학과 그리스의학과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함으로써 아유르베다의 연구에 있어 양과 질을 모두 향상시켰다. 2000년대에는 아유르베다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주로 체질⁴⁾, 요가⁵⁾, 마음⁶⁾, 의경⁷⁾을

주제로 한 연구가 많았다. 그리고 아유르베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⁸⁾을 다루거나 한의학과 비교한 경우⁹⁾도 있다. 그러나 이런 양적인 성장의 이면에는, 오래된 자료나 오류가 있는 내용을 검증없이 받아들이거나, 부정확한 서술로 인해 오해를 유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하였다.¹⁰⁾

아유르베다는 한의학과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 기원을 살피는 것은 한의학의 시원을 되짚어 보는데도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유르베다의 기원에 대해 정리하고 고찰하고자 하였다. 한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관점이 존재하듯, 아유르베다의 기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고자 하였다. 먼저, 전설로 내려오는 아유르베다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고, 아유르베다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 문헌적 기원을 살핀 뒤, 역사적 기원으로는 문헌이 등장하기 이전 인더스 문명의 의학과 아유르베다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2) 인도전통의학체계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유르베다, 시다, 유나니, 요가, 자연요법, 동종요법이 있다.

3) 2000년 이전의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曹圭瓚, 「印度醫學에 대한 小考」, 中央醫學, 1974;163:367-371. / 尹準植, 「印度醫學發達과 아유르베다 II」, 의약정보, 1980;63:102-105. / 河萬秀, 「인도 古典인 아유르베다에 있어서의 體質類型에 關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1991; 3(1):129-140. / 朴鍾雲, 「古代 印度醫學(Ayurveda)의 形成과 體系」,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4) 체질관련 논문으로는, 류시현, 「사상의학과 아유르베다의 체질에 관한 연구」,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배현지, 「아유르베다의 트리도샤와 한의학의 사상체질 비교」, 창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최경화, 「아유르베다의 바타, 피타, 카파체질과 사상체질과의 연관성 연구 : 사상체질과의 체형과 성격을 중심으로」,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영미, 최은영, 장병수, 「아유르베다의 바타(Vata), 피타(Pitta), 카파(Kapha) 체질에 따른 피부 유형 조사 분석」,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09;13(2):19-26. / 박정현, 김형준, 「인도의 전통의학 아유르베다와 형상의학의 정기신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형상의학회 학술대회 논문, 2005. 등이 있다.

5) 아유르베다와 요가를 비교한 논문으로는, 주영미, 「인도 문헌에서의 Prana와 Pranayama」,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성자, 「아유르베다에서 아그니를 증가 시키는 방법에 관한 연구」,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박종탁, 「요가호흡이 질병치유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하타요가와 아유르베다를 중심으로」,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은옥, 「아유르베다와 요가의 정화법 비교 연구」,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李仁, 「짜끄라의 覺醒法에 관한 研究: 아유르베다(Ayurveda) 요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등이 있다.

6) 마음을 주제로 한 논문에는, 계미량, 「아유르베다에서 보는 몸과 마음의 상관성 연구 : Caraka Samhita의 Sarirasthanam을 중심으로」,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이영미, 「아유르베다의 트리도샤와 용의 심리적 유형의 비교」, 창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윤정현, 「아유르베다와 에니어그램의 성격유형 비교」, 창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등이 있다.

7) 醫經을 다룬 논문으로는, 박정애, 「짜라카 쌍히따에 나타난 인체에 관한 연구 : 샤리라스타나-1장~7장을 중심으로」,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기욱, 서지영, 박찬국, 「아유르베다의 의경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7;20(4):91-117. / 김기욱, 서지영, 박찬국, 「수스라따 삼히따의 1-15장 어석을 통한 아유르베다에 관한 연구(1)」, 대한한의학회지, 2009;22(4):67-100. / 서지영, 「『Susruta-samhita·Sutrasthana(수수르따-상히따·수뜨라스타나)』의 편역을 통한 'Ayurveda(아유르베다)'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등이 참고할 만 하다.

8) 이와 관련된 2000년 이후의 논문에는 서지영, 「인도 전통 의학에 관한 연구 : '아유르베다'(Ayurveda)를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가 있다.

9) 이와 관련된 2000년 이후의 논문에는, 김덕곤, 「한국한의학과의 인도전통의학의 비교연구」, 大韓韓醫學會誌, 2005;26(2):201-216.가 있다.

10)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아유르베다'를 書名으로 잘못 받아들인 것이다. '아유르베다'는 문헌적으로 베다에서 기원한 고대인도의학을 지칭하는 용어로, 아직까지 '아유르베다'라는 이름의 서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김진희, 한창현, 김남일, 「아유르베다의 정의와 인도전통의학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참고.

II. 신화적 기원

인도에서는 모든 지식이 신에 의해서 창조된 신성한 것으로 믿어져 왔다. 힌두 신화에서 우주의 서사시는 트리무르티스(Trimurtis)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고 한다. 트리무르티스란 창조의 신 ‘브라마(Brahma)’, 보존의 신 ‘비쉬누(Vishnu)’, 파괴의 신 ‘시바(Siva)’를 말한다.¹¹⁾ 이 중 고대 인도의학의 체계는 모든 학문의 원천인 우주의 주재자 브라마(Brahma)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일컬어진다. 『수스루타 삼히타(Sushruta-Samhita)』와 『차라카 삼히타(Caraka-Samhita)』에 의하면, 아유르베다는 아타르바베다의 가지로, 브라마가 100장 10만 계송을 만들었다가 다시 축소시켜 8과로 만들었다고 한다. 『수스루타 삼히타』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자인 단반타리(Dhanvantari)가 그들에게 대답하길 “여기에서 말하는 ‘Āyurveda(아유르베다)’는 실은 아타르바베다(Atharva-veda)의 ‘upāṅga(가지)’로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브라마(梵天)’가 100장 `10만 계송을 만들었다. 그러나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고 이해력이 모자람을 보고 다시 축소시켜 다음과 같은 8과로 만들었다. (1) Śālyā-tantra(일반외과학), (2) Śalākya-tantra(特殊外科學), (3) Kāyā-cikitsā(體療法), (4) Bhūta-vidyā(鬼神學), (5) Kāumāra-çritya(小兒科學), (6) Agada-tantra(毒物學), (7) Rasāyana-tantra(不老長生學), (8) Vājīkaraṇa-tantra(強精學)이다.¹²⁾

아유르베다는 브라마에서 다른 신들을 거쳐 인간에게 전수되는데, 그 과정은 『차라카 삼히타』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도자였던 바라드와지는 신들의 신이자 장수를 관장하는 인드라에게 갔다.(Su 1#3¹³⁾)

먼저, 프라자파티가 브라마로부터 아유르베다의 전부를 전수받았다. 이는 아쉬윈 형제¹⁴⁾를 통해 인드라 왕에게

완전히 전수되었다. 이것이 바라드와자가 현자들의 요청을 받고 인드라에게 간 까닭이다.(Su 1#4-5)

질병이 갑자기 발생하여 생물의 수명, 종교적인 규율, 독신, 학습, 금욕, 절제, 참회 등을 방해할 때, 위대한 영적 현자들이 생물들에 대한 연민에서 히말라야의 상서로운 지식들을 모았다.(Su 1#6-7)

질병이 없는 상태는 덕과 부, 만족과 해방의 최상의 원천이다. 반면에 질병들은 이것들과 행복, 삶 자체를 파괴한다. 이제 질병이 사람에게 엄청난 장애물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자들은 이 문제에 집중하였고, 구세주인 인드라를 보았다. 이 신들의 신만이 이 문제를 극복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줄 수 있었다. (Su 1#15-17)

현자들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인드라에게 누구를 보내야 하는지 물었다. 먼저, 바라드와자가 말했다.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소.” 그는 인드라의 거처로 보내졌고, 거기에서 발라(Bala)를 죽인 이가 독실한 현자들의 중앙에 앉아 불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하며 인드라에게 다가가, 가능한 최대로 겸손하게 현자들의 말을 전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공포를 일으키는 질병들이 발생했습니다. 오, 신들의 주인이시여! 세계 이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소서.” 그러자 위대한 현자의 넓은 지혜를 알아 채 인드라는 그에게 몇 마디로 아유르베다를 전수하였다. (Su 1#18-23)

인드라가 말했다. “태고부터 이어진 아유르베다는 (창조주인) 브라마에 의해 처음 알려졌다.” (Su 1#24)

지혜로운 현자, 바라드와지는 짧은 시간에 무한한 세 갈래의 아유르베다를 완전히 습득하였다. 그에 의해 무한하고 행복한 수명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는 이 지식을 현자들에게 전하였다. (Su 1#25-26)

장수를 원하는 현자들도 바라드와자에게서 수명을 연장하는 자애로운 베다를 전수받았다. 위대한 현자들은 개론의 교의를 확고히 따름으로써 보편(samanya), 특수

11) 정진성, 허은영, 박혜련, 허선희. 『테라피스트를 위한 아유르베다』, p.36.
12) 서지영. 『『Sushruta-samhita-Sutrasthana(수스루타-삼히타-수트라스타나)』의 편역을 통한 'Ayurveda(아유르베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p.5-6.
13) 'Su 1#3'는 '수트라스타나(Sutrasthana) 1장, 3번째 수트라(sutra)'를 축약한 표시이다. 이하 같다.

14) 아쉬위니 쿠마르(Ashwini Kumars) : 쌍둥이 말 인간으로 모든 단계에서 건강과 회춘을 증진시키는 아유르베다의 주요 베다 신이다. 그들은 리그베다에서 기적을 행하는 자들로서 아픈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어나게 한다. 이 기적의 쌍둥이들은 확장파 수축이라는 생명력의 이원적인 본성을 나타내며, 균형을 창조하기 위한 필요성을 나타낸다. 데이비드 프롤리, 수바슈 라나테 저. 『자연의학 아유르베다』, p.29.

(visesa), 성질(guna), 실체(dravya), 운동(karma), 내속(內屬, samavaya)의 지식을 한층 더 붙잡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최상의 행복과 장수를 달성하였다. (Su 1#27-29)

이제 푸나르바스(Punarvasu)가 모든 창조물들에 대한 연민과 호의에서 고결한 आयुर्वेदा를 그의 여섯 제자들, 아그니베사(Agnivesa), 벨라(Bhela), 자투카르나(Jatukarna), 파라사라(Parasara), 하리타(harita), 크사라파니(Ksarapani)에게 전하였다. (Su 1#30-31)

아그니베사는 아트레아의 가르침을 담은 첫 번째 개론서를 저작하였는데, 이는 매우 비범한 것이었다. 이후에 벨라와 다른 이들도 자신들의 저서를 내었다. (Su 1#32-40)¹⁵⁾

아유르베다는 역사적으로 내과 학파와 외과 학파로 나뉘어 발전하게 되는데, 『차라카 삼히타』에 기록된 이 내용에서 내과 학파의 선구자인 푸나르바스¹⁶⁾에게 이어지는 전승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외과 학파의 전승과정은 『수스루타 삼히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 외과학이 8과 가운데 가장 앞에 자리한 것은 이전에 (신들이 전쟁으로) 創傷·腫瘍을 치료한 신화와 '야즈나(Yajña, 제사의 신)'의 절단된 머리를 잇는 전설에서 기원하였다. 즉 루드라신(Rudra)이 야즈나의 머리를 베었을 때에 여러 신들이 아쉬윈(Aśvin)이라는 두 신의 곁으로 와서 "두 신이시여! 두 분은 우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용자이니 두 분이 야즈나의 머리를 능히 이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신이 "그건 그렇다"고 하였다. 여러 신들이 두 신에게 공물을 바치고 '(루드라의 폭행에 격분한) 인드라신'을 위무하였다. 그렇게 하여 야즈나의 머리는 두 신에 의해 이어지게 되었다.

이 일반 외과학이 아유르베다 8과 가운데 우월하다고 보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외과적인 처치에 신속함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둘째, 'yantra(鈍器)'·'śāstra(銳器)'·부식법 및 소작법을 운용하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다른 과와 상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과는 常住吉祥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영광을 부여하여 장수를 누리게 하고 생계를 지원한다. 梵天의 시작에서 이를 말하여 프라자파티(Prajapati)가 따라서 이를 배우고 '두 신(雙子之神)'은 프라자파티에게, 인드라는 '두 신(雙子之神)'에게 이를 배웠다. 나는 지금 인류를 위해 이를 배우고자하는 사람에게 전수한다.

이에 계송하길:

"나 단반타리(Dhanvantari)¹⁷⁾는 실로 梵天으로써 諸神의 老病死를 없애고 일반외과학과 기타 醫方을 숙달시켰지만 지금 다시 이를 下界에 가르치기 위해 이 세상에 현신하였다."¹⁸⁾

위의 내용에서 梵天은 브라마이고, 두 신(雙子之神)은 아쉬윈 쌍둥이 신이다. 이를 살펴보면, 브라마에서 인드라에게 이어지는 전승과정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후 내과는 인드라에서 바라드와자로, 외과는 인드라에서 단반타리로 분리되어 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스루타 삼히타』는 단반타리와 수스루타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형식상 단반타리의 가르침을 수스루타가 기록한 것처럼 되어있다. 『차라카 삼히타』가 아트레아와 아그니베사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렇게 단반타리와 그의 제자들은 인드라로부터 외과를 중심으로 한 지식을 전수받아 외과 학파를 구성하였으며, 이 학파는 '단반타리 학파'로 불린다.

어떤 학자는 외과 지식의 전승과정에 단반타리와 함께 니미(Nimi)를 언급하기도 한다. 수스루타 개론서는 단반타리와 니미(Nimi)가 전한 지식에 기초하여 수스루타가 썼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인드라는 브라만 시대 초기에 니미와 단반타리에게 이런 지식들을 가르쳤다고 전해진다. 니미는 눈, 귀, 코, 인후와 머리에 관한 외과수술(shalakyatantra)을 특수화시켜 수스루타에게 전했다. 그런 그의 지식을 수스루타가 눈의 해부구조와 진화를 체계적이고 열정적으로 기술하였다.¹⁹⁾

15) Gabriel Van Loon. 『Charaka Samhita : Handbook on Ayurveda I』. pp.106-107.

16) 푸나르바스 아트레아(Punarvasu Āreya) : 푸나르바스 아트레아는 인도 동북부에 위치한 히말라야 산맥 주변에 살던 유명한 아유르베다 의사였다. 그의 시대는 대략 8세기로 추정되며, 그와 그의 제자들은 내과 위주의 학파를 형성하여 이를 아트레아 학파라고 한다. 그의 제자 중 아그니베사가 쓴 개론서가 가장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데, 현전하지 않으며, 후대에 차라카가 이를 개정하여 『차라카 삼히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7) 단반타리(Dhanvantari) : 아유르베다의 수호신. 푸라나들에 카시(Kashi, 현재의 바라나시)의 왕으로 처음 설명되는 인물로서, 아유르베다의 불멸의 비밀을 발견했고, 최초로 완전한 의료 체계를 수립했으며, 학교를 통해 아유르베다를 보급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창조물의 건강, 조화, 복리를 유지하는 보존의 우주적 능력인 비슈누 신의 화신이라고 말해진다. 데 이비드 프롤리, 수바슈 라나데 저. 앞의 책. p.29.

18) 서지영. 앞의 글. pp.7-8.

19) 박종운. 「고대 인도 의학(AYURVEDA)의 형성과 체계」. p.10.

또 단반타리와 바라드와자 외에 카스야파(Kashyapa)도 역시 인드라로부터 신성한 지식을 전수받았다고도 한다. 카스야파와 그의 제자들은 쿠마라브루त्या(Kumarabhrutya)라는 소아과 중심의 카스야파 학파를 형성하였으며, 유명한 학자로는 『카스야파 삼히타(Kashyapa Samhita)』를 저술한 브루다 지바카(Vruddha Jeevaka)가 있다고 하였다.²⁰⁾

한 민족이나 국가의 기원을 신에게 두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일이다. 이는 학문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의학에伏羲(伏羲), 신농(神農), 황제(黃帝), 요순(堯舜) 등의 전설적 인물이 등장하듯 아유르베다에도 신화적 기원과 전승체계가 존재한다. 전해오는 문헌들에 의하면, 아유르베다는 그 신화적 기원을 창조주인 브라마에 두고 있으며, 프라자파티와 아쉬윈 쌍둥이 신을 거쳐 신들의 신인 인드라에게 전해진다. 여기까지가 신들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공통적인 전승과정으로, 이후로 아유르베다는 인간들에게 전수되는데 크게 내과의 아트레야 학파와 외과의 단반타리 학파로 분리되어 전승되며, 어떤 학자는 여기에 소아과 중심의 카스야파 학파도 추가하기도 한다. 내과의 경우는 성자인 바라드와자가 인드라로부터 전수받아 푸나르바스 아트레야에게 전하고, 아트레야는 그의 제자들과 아트레야 학파를 형성하는데, 그의 제자 중 아그니베샤가 저술한 개론서가 가장 뛰어나 대표적인 내과 고전으로 인정되었다. 그의 개론서는 현전하지 않으나, 이를 후대의 차라카가 개정하여 『차라카 삼히타』로 불리는 서적이 현전하고 있다. 외과의 경우는 단반타리가 인드라에게서 전수받아 수스루타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전하였는데, 수스루타가 이 가르침을 기록한 『수스루타 삼히타』가 대표적인 외과 고전이다. 일설에는 단반타리와 함께 니미도 수스루타에게 수스루타에게 외과 지식을 전수했다고 한다.

III. 문헌적 기원

1. 베다

인도의 아유르베다와 같은 고대의 전통적인 의료 체계들은 사람을 몸이나 마음보다는 영적 차원의 총괄과

자연계와 사회계의 일원으로서 간주하는 종교적인 우주철학들에 기원을 두고 있다.²¹⁾ 따라서 아유르베다의 기원을 살펴보자면 먼저 인도의 여러 사상들의 출발점이자, 아유르베다의 철학적 바탕이며 문헌적 기원이기도 한 『베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인도사상에 관한 최초의 출처는 하나의 작품이 아닌 전체 문헌을 의미한다고 전해지는 베다이다. 『베다』는 고대 인도의 종교문헌으로, 원래는 ‘지식’을 뜻하며, 특히 종교적인 지식, 나아가서 그러한 종교적 지식을 수록한 브라만교의 성전을 가리키게 되었다. 예로부터 인도인의 생활을 규제한 것은 민족이나 국가, 법률, 도덕이 아니라, 종교에 기반을 둔 철학적인 사변이었으며, 그 바탕에는 시종 절대 권위의 『베다』가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것의 원천인 『베다』를 빼놓고 인도의 역사, 문화, 생활을 이해할 수가 없으며, 논할 수조차 없다.²²⁾

‘베다’란 산스크리트어로 ‘읽’ 또는 ‘지식’ 또는 ‘지혜’ 또는 ‘종교적 지식’을 뜻한다. 베다는 ‘신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라는 뜻의 수르티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기억의 계승’ 또는 ‘전통을 따른다’라는 뜻의 스미리티로 이해된다. 베다의 경전은 B.C. 약 1500년을 전후로 하여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고대 인도의 종교와 신화 및 철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베다의 영역은 삼히타, 브라흐마나, 아란야카, 우파니샤드 이렇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지며, 이 중에 핵심 경전의 모음집인 삼히타는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 등의 만트라, 또는 진언(眞言)을 담은 네 개로 구성된 문헌을 말한다. 이것은 학문적으로 B.C. 1200년 경에 완성되었다고 본다.

리그베다의 ‘리그’는 ‘시’ 또는 ‘칭송한다’라는 뜻이다. 이 경전의 기록문자이며, 인도 유럽어족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문자인 산스크리트어는 철학-언어학적으로는 인도의 북서쪽에서 B.C.1700년~B.C.1100년 전 아리안족으로부터 내려왔으며, 문화-언어학적으로는 이란인의 초기 언어인 아베스타에서 유래된 인도유럽조어로서, 시베리아 청동기 시대의 초기 안드로노보 시대인 B.C.2200년~B.C.1600년 전부터 문화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리그베다는 제식을 행하는 장소에 신들을 불러와서 원하는 의식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한 자연의 응장함을 표현하였다. 리그베다는 모두

20) 정진성, 허은영, 박해련, 허선희. 앞의 책. p.36-37

21) 이영화. 「아유르베다의 심신관리에 관한 연구」. p.11.

22) 박종운. 앞의 글. p.5.

10권의 만달라(Chapter, 장)로 되어 있으며, 전체 1,028개의 산스크리트어 찬가인 만트라와 10,600개의 시구로 구성되어 있다. 리그베다는 B.C.2000년 ~ B.C.800년경에 정립되어졌다고도 하고, B.C.1700년 ~ B.C.1100년경 인도 편자브 지방에서 집대성된 것이라고도 한다. 베다의 여러 신들을 찬미하는 종교시이며, 내용이 간결하고 소박하다.

사마베다는 ‘베다의 노래’ 또는 ‘베다의 찬송’이라는 뜻으로, 사마베다의 ‘사만’은 음조를 의미한다. 즉 리그베다를 음과 노래로서 찬미한다는 것이다. 사마베다의 노래 중에 빠른 것은 B.C.1000년경부터 불리지기 시작되었으며, 일부 반복되는 시구를 포함하여 총 1,875개의 절의 만트라로 구성되어 있다. 노래 가사는 대부분 리그베다에서 가져온 것이다.

야주르베다는 B.C.1400년경~B.C.1000년 사이에 완성되었으며, 모두 1,976개 절의 만트라로 이루어져 있다. 야주르베다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흑(黑) 야주르베다인 크리쉬나 야주르베다와 백(白) 야주르베다인 수클라 야주르베다가 있는데, 성립시기는 흑 야주르베다가 백 야주르베다보다 더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다. 야주르베다는 예배의식의 진행과 관련된 고풍스런 산문으로 엮은 만트라와 함께 리그베다의 시구를 인용하고 있으며, 예배의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성격을 가진다. 예배에 바치는 봉헌의 제물들을 앞에 두고 만트라의 구절을 노래하는 것으로서 사마베다와 구별된다.

아타르바베다는 출생, 혼인, 장례와 같은 인간의 변환기 때에 이르는 의식이나 만월 또는 월삭과 같은 달의 변화에 따르는 시간과 계절에 대한 제례의식, 조상에 대한 공양의식 등을 행할 때 사용된다. 아타르바베다는 신에 대한 찬송과 예배에 대한 만트라를 기록한 것이지만, 거기에 복을 빌고 재난을 막기 위한 만트라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리그베다가 사제계층의 브라만들에게만 행해졌다면 아타르바베다는 일반적인 서민들의 관습에까지 영향을 준 경전이다. 아타르바베다는 731개의 만트라 찬가와 6,000개의 시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5분의 1 정도는 리그베다에서 가져온 것이다. 리그베다의 후기의 사상과 우파니샤드의 철학을 연결하는 시기였던 B.C.1000년~B.C.800년경에 성립된 이 경전은 신에게 바치는 감로인 소마에 대한 의식을 비롯하여 사람들의 모든 의례와 제식이 포함된 종교적인 경전이자 문헌이다. 아타르바베다의 상당히 복잡한

규정과 그에 관한 신화적 의미는 실제로 인도인들의 문화 속에 깊이 부여되어 있다.²³⁾

아유르베다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는 아타르바베다만을 언급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리그베다와 아타르바베다를 언급하며, 모든 베다가 관련이 있다고 하기도 한다. 다른 베다들이 의식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아타르바베다는 실생활과 관련이 깊어 약초나 치료법에 대한 내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담고 있다. 또 『수스루타 삼히타』와 같은 고전에는 “아유르베다는 실은 아타르바베다의 ‘upānga(가지)’이다.²⁴⁾”라는 언급까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아타르바베다가 아유르베다와 가장 관련 깊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아유르베다의 기본 원리는 인도 고유의 철학 사상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는 모든 베다들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아타르바베다만이 아유르베다와 관계가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아유르베다는 사상적 측면에서 모든 베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약초나 치료법과 같은 실제적인 부분은 아타르바베다와 가장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2. 삼히타

일반적으로 아유르베다와 관련된 最古의 지식은 베다에서 찾지만, 베다는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경전이었고, 아유르베다와 관련된 내용은 흩어져 있었으며 체계화되어 독립된 경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아유르베다가 체계화되고, 독자적인 경전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브라만시대²⁵⁾에 이르러서였다. 이때 저술된 3대 고전으로는 『차라카 삼히타(Charaka Samhita)』, 『수스루타 삼히타(Sushruta Samhita)』, 『아슈타타 상그라하(Ashtanga Sangraha)』가 있다. 현재의 아유르베다는 실질적으로 이 세 고전에서 출발한 것이다.

1) 차라카 삼히타

『차라카 삼히타』는 현존하는 아유르베다 문헌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아유르베다의 고전들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 책이 등장하기 전에는 베다와 같은 종교적인 경전 속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야 했으나, 『차라카 삼히타』가 등장한 이후로는 실제적인 의학

23) 박지명, 이서경 주해. 『베다』. pp.15-19, 23.

24) 서지영. 앞의 글. p.5.

25) B.C. 800년부터 A.D. 1000년까지를 말한다.

내용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차라카는 주로 약초를 이용해 치료하는 내과 의사들의 아트레야(Atreya) 학파를 대표한다. 차라카가 개인인지, 아니면 어떤 전통적인 단체인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그 가운데 어떤 학자들은 차라카가 흑야주르베다의 분과 중 하나며 그 지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²⁶⁾ 그의 시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보우어 초본(The Bower manuscript)²⁷⁾은 의학 권위자로서의 차라카의 시기를 A.D. 6세기 초까지로 당겨주었다. 그런데 역사적 증거는 시기를 그보다 더욱 앞으로 당겨준다. 차라카라는 이름의 의사는 A.D. 5세기 후반의 중국 서적에 등장한다. 472년, 북위시대(386-584)에 살았던 두 명의 중국 승려들이 저자미상의 산스크리트 문헌을 중국어로 번역하였다. 이것은 ‘Samukṭarat napitakasūtra’라고 불리는데, 산스크리트 원본은 분실되었지만 중국 번역본은 살아남았다. 이 문헌은 불교의 역사와 전설 모음집이었다. 7장의 16번째 이야기에는 유명한 월지(月氏)²⁸⁾의 왕, 데바푸트라 카니슈카

(Devaputra Kanishka)에 대한 서술이 있다. 그에게는 세 명의 측근들이 있었는데, 아슈바고샤 보디사트바(Āśvaghōṣa Bodhisattva), 수상 마타라(Maṭhara), 유명한 의사 차라카가 그들이었다. 이들 세 명은 왕의 한결같은 동료이자 조언자였다. 이 이야기는 보우어 초본이 나타나기 이전에 차라카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외적 증거였다. 카니슈카 왕의 시기는 최근 북아프가니스탄에서 발견된 라바탁(Rabatak) 비문의 내용에 의해 명백하게 밝혀졌다. 카니슈카 왕의 연대는 A.D.100~126 또는 A.D. 120~146이다. 그가 지배한 쿠산 제국은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펀잡, 구자라트 지역이다.²⁹⁾ 이에 따라 많은 학자들은 차라카의 연대를 A.D. 1~2세기로 본다.

그런데 차라카의 이름을 본 딴 『차라카 삼히타』의 주 저자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라카 삼히타』 안에서 ‘차라카(Caraka)’라는 이름은 각 장의 가장 끝에서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각 장의 이름과 번호가 쓰여 있어 현재로 따지면 각 장의 제목들과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다. 여기에 『차라카 삼히타』는 아그니베샤(Agnivesha)의 탄트라(tantra)로 불리며 차라카에 의해 개정되었다고 되어있다. 차라카의 이름은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작품은 주로 현자 아트레야(Ātreya)가 그의 제자들 중 한 명인 아그니베샤에게 주는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⁰⁾

아트레야와 아그니베샤는 모두 전설로만 남아있는 인물들이다. 이에 따르면, 푸나르바스 아트레야(Punarvas Āreya)는 인도 동북부에 위치한 히말라야 산맥 주변에 살던 유명한 아유르베다 의사였다. 아트레야에게는 6명의 제자가 있었다. 아그니베샤(Agniveśa), 벨라(Bhela), 자투카르나(Jatūkarṇa), 파라사라(Parāśara), 하리타(harīta), 크샤라파니(Kṣārāpaṇi)가 그들이었다. 이 여섯 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우수한 제자는 아그니베샤였다. 그가 썼고 이후 그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아그니베샤 삼히타』는 매우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사적으로 이 책은 가장 권위있는 아유르베다 고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아그니베샤 삼히타』에서 불교의 영향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고전이 쓰여진 시대는 그보다

26) 계미량. 「아유르베다에서 보는 몸과 마음의 상관성 연구 -Caraka Samhita의 Sarirasthanam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8.

27) Bower 抄本은 1890년 Bower 대위가 투즈스탄의 쿠차에서 불교사원을 발견하였다. 발견자의 이름으로 명명한 초본은 그 속에 매우 오래된 옛 시대의 의학과 점복이 기록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모두 51쪽에 달하는 白樺樹皮에 쓰인 초본의 연대는 자체 등의 판단에 의거하면 C.E. 4세기 후반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Navanitaka라 명명한 의학적인 부분이다. 연대가 비교적 분명하고 또한 『布哈拉集』, 『차라카 삼히타』, 『수스루타 삼히타』의 약물처방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의학사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귀중한 것이다. 서지영. 「인도 전통의학에 관한 연구-아유르베다(Ayurveda)를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45.

28) 월지(月氏, 月支)또는 대월지(大月氏, 大月支)는 B.C. 3세기~1세기 경 북아시아, 중앙 아시아에 존재했던 유목 민족과 그 국가를 이른다. 월지라는 명칭은 한자로만 전해 내려오는데, BC 2세기 초의 중국 문헌에 중국 북서부 간쑤 성(甘肅省)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유목민으로 처음 언급되어 있다. B.C. 3세기 말에 신장 동부에 살던 월지족은 흉노에게 쫓겨 서쪽으로 이동하여 아무다야르강 연안에 대국가를 세우고 아무다야르강 남쪽의 박트리아(大夏)까지 지배하였다. 이때 한나라가 흉노를 함께 공격하기 위해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하였다(B.C.139). 대월지는 흉노를 공격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박트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데 전념하였다. 그리하여 파미르 힌두쿠시의 남쪽에 도착해후인 다섯 흠후(翕侯)를 두어 통치하였다. 그러다가 1세기경 다섯 흠후의 하나인 쿠산(貴霜翕侯)이 강성해지면서 대월지 대신 쿠산왕조가 성립하였으나 중국에서는 쿠산왕조도 또한 대월지라고 불렀다.(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B%94%EC%A7%80>>, [2010. 11.

18].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7a0425a>. [2010. 11. 18]. 황보중우. 『세계사 사전』. 청아출판사. 2003. p.35. 참고)

29) Dominik Wujastyk. 『The Roots of Ayurveda』. New York. Penguin Classics. 2003. pp.3-4.

30) Dominik Wujastyk. 앞의 책. p.4.

이전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또 이 고전 속에 나오는 지리적인 설명 사회와 생활정보를 분석하면 『아그니베샤 삼히타』가 쓰여진 때는 기원전 8세기라는 결론에 도달한다.³¹⁾ 이 『아그니베샤 삼히타』를 다듬고 확대한 것이 『차라카 삼히타』라는 것이 현재의 정설이다.

차라카의 개정작업 이후에 드리다발라(Dr̥ḍhabala, A.D.4~5세기³²⁾)가 빠진 부분을 완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³³⁾ 그는 오랜 세월을 걸쳐 분실된 「치키차스타나(cikitsāsthāna)」와 다른 장들을 보완했다고 한다.³⁴⁾ 그 이후 120장으로 이루어진 본문은 여덟 부분으로 나뉘어 그대로 현재까지 전해온다.

『차라카 삼히타』의 여덟 부분은 다음과 같다.

- ① 수트라스타나(sūtra sthāna)-아유르베다의 일반적 원리와 기초적 개념 (30장)
- ② 니다나스타나(midāna sthāna)-진단 병리학 다양한 질병의 일반적 생리학 (8장)
- ③ 비마나스타나(vimāna sthāna)-화학적 생리학적 측면 임상시험에서의 진단 절차 감염과 전염병 등 잡다한 주제(8장)
- ④ 샤리라스타나(śarīra sthāna)-해부학과 발생학(8장)
- ⑤ 인드리아스타나(indriya sthāna)-병의 징후학과 예후학 (12장)
- ⑥ 치키차스타나(cikitsā sthāna)-라사야나(rasāyana, 회춘)와 와지카라나(vājīkarana, 강장)와 같은 장수와 건강에 관한 수많은 약물 공식과 처방 다양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약물 공식과 처방(30장)
- ⑦ 칼파스타나(kalpa sthāna)-약물 공식과 조제(12장)
- ⑧ 시디스타나(siddhi sthāna)-오늘날 판차카르마로 잘 알려진 배출과 정화 절차(12장)³⁵⁾

『차라카 삼히타』에 의하면 인도에는 고전 의학의 8과인 신체치료, 특수 외과학, 이물 제거, 독이나 잘못 배합된 식용으로 일으키는 이상에 관한 치료법, 귀신학, 소아과학, 장생불노학, 強精法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학 8과 중 특히 특수한 외과학, 이물제거, 소아과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외과는 『수스루타 삼히타』가 더욱 상세하고, 소아과(귀신학을 포함)는 『아슈탕가 상그라하』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³⁶⁾

31) 이영화. 앞의 글. pp.12-14.

32) 일설에는 9세기라고도 한다. 이영화. 앞의 글. p.15.

33) Dominik Wujastyk. 앞의 책. p.4.

34) 그의 이름이 『차라카 삼히타』의 6번째 파트의 많은 장들과 7, 8번째 장의 저자로 각 장의 끝에 기록되어 있다. Dominik Wujastyk. 앞의 책. pp.4-5.

35) 서지영. 앞의 글. p.12.

2) 수스루타 삼히타

수스루타는 외과 의사들의 단반타리(Dhanvantari) 학파를 대표한다. 『수스루타 삼히타』에서는 단반타리가 그의 제자들을 대표하여 수스루타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차라카 삼히타』가 내과 중심의 고전이라면, 『수스루타 삼히타』는 외과 중심의 고전이다. 『차라카 삼히타』는 A.D. 1~2세기에 서북인도에서 형성된 것으로, 『수스루타 삼히타』는 인도의 중동부에서 최종적으로 A.D. 3~4세기³⁷⁾에 완성된 것으로 본다.³⁸⁾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스루타 삼히타』는 후에 나가르주나(Nagarjuna)³⁹⁾에 의해 개정된 것이다. 이후 달하나(Dalhaṇa)가 해석을 덧붙여 외과영역의 권위있는 의학서로 유명해졌다.

『수스루타 삼히타』는 6권 18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20가지의 수술 도구, 300가지의 수술 절차를 기술하고 수술을 8가지 범주로 분류하였고, 많은 수술 도구에 관한 세련된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성형수술과 항문 직장수술의 절차뿐만이 아니라, 골절, 상처, 종기, 화상 등에 관한 세분화는 여러 시대에 걸쳐서도 인정받았고, 뼈, 관절, 신경, 심장, 혈관과 순환 등의 해부학에 관한 지식 또한 체계적이다. 아유르베다에서 수스루타는 수술에 관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수많은 독창적인 공헌으로 인해 수술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며, 질병의 발병학에 관한 최초의 개념을 묘사하고 있다.⁴⁰⁾

3) 아쉬탕가 상그라하

바그바타(Vagbhata)는 당시 활용되던 고전의 내용을 정리하고 『차라카 삼히타』와 『수스루타 삼히타』에 기초해서 『아슈탕가 상그라하(Ashtanga Sangraha)』라는 의학서를 만들었다. 그는 말년에 불교에 귀의한 귀족 출신으로 아버지인 심하굽타와 불교 승려인 아발로키타로부터 아유르베다를 배웠다고 한다. 바그바타의

36) 서지영. 앞의 글. p.62.

37) 『수스루타 삼히타』의 저술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처음 수스루타(Sushruta)에 의해 B.C. 6세기경 저술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고(서지영, 2007), 수스루타를 차라카와 거의 동시대로 추정하기도 한다(K. D. SHARMA, 2000).

38) 서지영. 앞의 글. p.84.

39) 나가르주나(Nagarjuna)는 붓다시대의 위대한 과학자였다. 그는 2세기에 날란다(Nalanda) 대학의 학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나가르주나의 이름은 인도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등장하여 『수스루타 삼히타』를 개정한 나가르주나의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40) 이영화. 앞의 글. pp.15-16.

시대는 5세기라는 설이 유력하지만 7세기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

‘아쉬탕가 상그라하’라는 말은 ‘8부문의 정리’라는 뜻으로 이 고전에는 아유르베다의 8부문에 대한 지식이 종합되어 있다. 그는 최초로 『아쉬탕가 상그라하』를 쓰고 이어서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한 『아쉬탕가 흐리다야』라는 의학서도 썼다.⁴¹⁾ 그의 저작은 차라카와 수스루타의 요약 및 다른 아유르베다 저자들의 저술 내용을 추려 소개하고 있으며, 그 주제에 관한 새로운 정보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새로운 약초들을 많이 소개 했고, 외과 의술에 관하여 귀중한 수정과 보완을 하였다. 책 전체는 외우기 쉽도록 간결하고 아름다운 시들로 쓰여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오늘날에도 아유르베다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가장 애호를 받는다. 바그바타는 불교의 신들과 스승들을 언급한다. 티베트 의학 역시 바그바타에 관한 주석서를 기본으로 한다.⁴²⁾ 『차라카 삼히타』, 『수스루타 삼히타』, 『아쉬탕가 상그라하』 이 세 가지 고전은 브리하뜨라이(Bṛhatrayī) 즉 3대 의학서라고 불리는데, 아유르베다와 관련된 가장 권위있는 고전들이다. 아유르베다와 관련한 최초의 기록은 베다 속에서 찾을 수 있지만, 현재의 아유르베다의 체계는 이 세 고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IV. 역사적 기원

흔히 아유르베다를 ‘오천 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 오천 년 전의 인도 의학과 아유르베다의 관계에 대해 되살펴 보는 경우는 드물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서⁴³⁾가 “근대 교육을 받은 학자들도 ‘5000년 전에 존재하였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문헌으로 논한다면 고대 인도인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관심이 ‘아유르베다’라 칭하는 체계에 귀납되어 전승할 수 있는 지식이 된 것은 이와 같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가장 빨라도 B.C. 5~6세기에 불과하였다.”라고 한 내용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B.C. 5~6세기 이전의 인도 의학과 아유르베다의 관계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41) 이영화. 앞의 글. p.15.

42) 데이비드 프롤리, 수바슈 라나테 저. 앞의 책. p.40

43) 서지영. 앞의 글. p.31.

인도 의학과 아유르베다는 동의어가 아니다. 아유르베다는 인도 의학의 대표적인 부분 집합일 따름이다.⁴⁴⁾ 만약 인도전통의학 혹은 인도고대의학과 아유르베다를 완전히 동격으로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고대인도의학은 크게 베다 전 인도학과 베다 이후 인도 의학으로 살펴볼 수 있다. 베다가 들어온 이후, 베다 사상을 기반으로 발전한 인도 의학이 아유르베다의 모태가 된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베다가 들어 오기 전, 고대 인도에서 행해지던 전통 의학 역시 아유르베다의 기원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전통적인 인도 의학은 B.C. 3000년경에 탄생된 인더스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매우 엄밀하게 계획된 도시인 하라파(Harappa)와 모헨조다로(Mohenjodaro)는 화려한 인도 문화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위생과 건강관리 시스템이 발달된 곳이기도 하다. 사슴뿔과 비투멘(Bitumen)⁴⁵⁾이 발견된 하라파는 이곳에 의학이 존재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⁴⁶⁾

박⁴⁷⁾에 의하면 인더스 문명은 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그 도시에는 승려의사가 있었으며, 그들은 병을 치료하는 데 주문을 외고 약초와 향료를 사용했다. 이러한 고대 인도의 초기의학(베다의학이라고 함)은 종교적 의식과 경험에 바탕을 두었고, 병을 쫓기 위한 주문과 의식, 그리고 약초 처방은 서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같이 시행되었다고 하였다.

데이비드 프롤리도 기원전 3000년 무렵,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문명들이 있었는데, 이는 고대 인도에는 ‘하라파’, ‘모헨조다로’와 같은 큰 도시들에 의해 증명되었고, 원래 ‘하라파’ 혹은 ‘인더스’ 문명이라고 불린 그 문명은 지금은 ‘사라스와티’ 혹은 ‘인더스 사라스와티’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다고 하면서 아유르베다는 사라스와티 문화에서 발생하였으며, 초기의 아유르베다는 이 시대의 것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베다의 만트라들과 약초들은 하라파 도시들의 주요 의료 방법이였을 것이라고 하였다.⁴⁸⁾

44) 이와 관련해서는 김진희, 한창현, 안상우. 「아유르베다의 정의와 인도전통의학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0; 23(1):1-10.를 참고할 수 있다.

45) 비투멘(Bitumen) :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된 약제로서 ‘암반 오일’이라 불리는 암반에서 추출한 가연성 미네랄 물질이다.

46) 정진성, 허은영, 박해련, 허선희. 앞의 책. p.39.

47) 박종운. 앞의 글. p.1.

48) 데이비드 프롤리, 수바슈 라나테 저. 앞의 책. pp.23-24. 참조.

위의 내용들을 통해, ‘오천 년 전의 인도 의학’이라 함은 인더스 혹은 인더스 사라스와티 문명에 존재했던 의학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의학을 ‘베다의학’이라고 하고, 베다의 의학 관련 내용들이 이 문명에서 쓰인 것으로 추측하는 것으로 보아, 인더스 문명을 베다 문화권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더스 문명과 아리아인의 연계는 확실하지 않다. 비록 B.C. 3000년경의 인더스 사라스와티 문명에 이미 의학 지식이 있었으나, 인더스 문명의 쇠퇴이후 아리아인들이 이 의학 지식을 얼마나 계승했는지는 불분명한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인더스 문명과 아리아인들의 이주시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더스 문명은 하라파 문명이나 하라파-모헨조다로 문명이라고도 불리는데,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메르가르의 8단계 중 나우샤로의 1~2단계에 해당하는 중기 하라파 시대의 문명이다.⁴⁹⁾

인더스 문명은 캄베이만에서 파키스탄과 이란의 국경지인 마크란(Makran) 고원, 라호르 구릉 지대에서 봄베이 250km 지점인 바가트라브의 사면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꽃피웠다. 고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은 나란히 있는 2개의 수도, 모헨조다로와 하라파(현재의 파키스탄), 그리고 구자라트의 사바르마티강 하구의 로탈 항구이다.

인더스 문명의 문자는 아직 해독되지 못했지만 발견되는 수천 개의 인장에 새겨진 형상을 근거로 문명의 생활을 추측할 수 있다. 널리 발견되는 동물과 여성의 형상은 그들이 자연과 지모신상에게 제사를 드렸음을 말한다. 노기로 표현된 형상들의 특징은 풍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⁵⁰⁾

인더스 문명의 놀랄만한 특징 중 하나는 발달된 공중위생시설이다. 여기에는 수많은 우물과 욕실, 대형 목욕탕, 하수도와 쓰레기 투입구가 있었다. 도로는 질서 정연하였으며 집들은 잘 지어졌고 환기도 잘 되었다.⁵¹⁾ 대형 목욕탕은 종교적 목적과 의미를 지닌 행위와 관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의 도로와 건물에는 구운 벽돌로 만든 배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집집마다 쓰레기통과 욕실, 그리고 화장실이 1층이나 2층에 마련되어 있다. 욕실은 대로 밑에 만들어진 배수로나 하수구로 연결되어 있고, 벽돌이나 석판으로 배수로를 덮어 두었다. 이 배수 시스템은 메소포타미아에는 없는 것으로서, 인더스인들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라고 할 만큼 훌륭하다.

인더스인들은 비록 돌 연장을 계속 사용하긴 했지만 청동기 시대에 살았다. 그들은 주석과 구리를 섞어서 청동을 만들었다. 그들이 사용한 구리와 청동으로 만든 연장으로는 납작한 도끼, 끌, 칼, 창 끝, 화살촉 등이 있고, 이 시기에 이미 두드리기, 접기, 그리고 주조와 같은 다양한 제작 기술이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 유물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더스 문명의 멸망과 함께 이들의 문자를 비롯하여 발달된 공중위생 시설과 청동제조기술 등은 후대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인더스 문명이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다. 인더스 문명의 쇠퇴기인 말기 하라파 시대는 메르가르 8단계의 마지막 10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원전 1900~1800년에 놓인다. 학자에 따라 이 문명의 최후를 기원전 1500~1400년에 놓기도 하지만, 대략 기원전 2천 년경 초에 인더스의 도시 문명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 반면, 하라파 문명의 급격한 쇠퇴와 최후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아직까지도 학자들 간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⁵²⁾ 어떤 학자들은 인더스 문명이 아리아인들의 침입으로 멸망하였고, 아리아인들이 인더스 문명 위에 건설한 것이 베다 문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주장은 최근에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2500년경에 번영을 누리다가 기원전 1900년경부터 쇠퇴하였으며, 기원전 1500년 경에는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 따라서 고대의 인도인

49) 1974년 장 프랑수아 자리주(Jean Francois Jarrige)는 신드(Sindh)의 서부에서 발루치스탄(Baluchistan)의 고지로 이어지는 볼란 파스(Bolan Pass)에 이르는 경로를 따라 카치(Kachi) 평원에 있는 메르가르(Mehrgarh)와 나우샤로(Nausharo)를 발굴해냈다. 그곳에서 기원전 2천 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온전한 상태로 처음 발굴되었으며, 유물에 대한 분석 결과 인더스 문명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메르가르 유적은 1~8단계까지 고고학적 연대가 명확하게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선사 시대 연구에 있어서 연대 비교의 기준이 된다. 그 중 8번째 단계는 나우샤로 유적의 전체 시기(1~3단계)와 일치한다. 그 중 일부와 나우샤로의 1~2단계가 바로 우리가 인더스 문명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성욱, 『인도의 역사 I』, 종교와 이성, 2007, pp.22~23.’을 참고할 수 있다.

50) 마틸리아 알바네스 저, 이명혜 옮김, 『고대인도』, p.50.

51) Albert S. Lyons, R. Josseph Petrucelli. 『세계의학의 역사』, p.101.

52) 유성욱, 앞의 책, pp.41-43, 54, 63.

들은 그 지역을 ‘누군가 살다가 떠난 폐허’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타나 있다. 먼저, 이민족 중에서 가장 먼저 인도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리아인들의 베다 문헌 중, 비교적 초기에 속하는 기록에 보면 ‘흩어져 살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이민족의 거주지’, ‘여성 마법사의 소굴’, ‘황무지에서 도기가 발견된 장소’, ‘인더스 강변을 따라 있는’, ‘드리스드바띠(Dr̥ṣadvati)’ 등과 같은 다양한 표현으로 이 고대 유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고대 유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문헌에서 사용된 용어만 가지고도 당시 그들이 토착 문화에 대해 부정적 시각과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인도까지 진출을 시도했던 알렉산더 왕에 관한 기록에도 인더스 계곡에 남아있던 고대 도시 유적에 대한 내용이 있다. 알렉산더 왕이 기원전 325년에 아리스토폴로스(Aristoboulos)를 이 지역에 보내 조사하도록 했으며, 그가 조사를 마친 뒤에 ‘인더스 강의 흐름이 바뀌면서 수많은 도시와 촌락이 사막으로 되어 버려진 땅을 발견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인도-아리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인도로 들어오는 과정에 대한 여러 학설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소규모 집단의 형태로 오랜 세월을 걸쳐 인도로 이주해왔다는 설명이다. 그들은 더 좋은 목초지와 경작지, 그리고 상품교역에 보다 적합한 곳을 찾아서 오늘날 인도-이란 국경 지역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북인도로 이주해왔지만, 아리아인 침략론을 제기했던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이주 과정에서 토착민들의 대규모 정착지를 파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⁵³⁾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보면, 아리아인들이 인더스인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인더스 문명이 쇠퇴한 이후에 아리아인들이 이주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그들이 폐허가 된 토착 문명에 부정적 시각과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토착 문화를 계승하려는 태도 역시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실제로 인더스 문명의 문자를 비롯하여 발달된 기술들은 후대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즉, 계승할 만한 문화는 이미 쇠퇴하였고, 계승할 태도조차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들이 인더스 문명의 의학을 흡수하여 발전시켰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아유르베다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베다에 있다.

하지만 베다와 그 문화는 사라스와티 문명의 쇠퇴 후 이주해 온 아리아인들의 것이고, 현재로서는 인더스 문명의 문화가 얼마나 반영되었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베다 중 가장 오래된 『리그베다』에는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한 부족들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등장하는 신들은 인도의 토착신들이 아니며, 신관들이 영약으로 생각하여 즐겨마신 소마(Soma)는 인도에서 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베다 문명 및 아유르베다를 인더스(혹은 사라스와티) 문명을 계승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아유르베다의 시작은 아리아인들의 이주 시기이자 베다의 시기인 기원전 2000~1500년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V. 결 론

아유르베다는 고대로부터 이어 내려온 인도 전통 의학을 지칭하는 용어로, 어원적으로는 ‘생명의 과학’을 의미한다. 아유르베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가운데 하나이면서 또한 현재까지 행해지는 의학체제로, 역사적으로 불교와 함께 동아시아 각지로 전파되었고, 또 그리스 의학과 접목되어 유나니 의학을 탄생시켰으며, 현재는 대체의학의 일종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의학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아유르베다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의학과 아유르베다는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의학체계이면서 체질과 신체 내부의 균형을 중시하는 등 닮은 모습이 많다. 따라서 아유르베다의 기원을 살펴보는 것은 한의학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출발점을 돌이켜 보는 데에도 좋은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관점이 존재하듯 아유르베다의 기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에 전설로 내려오는 아유르베다의 신화적 기원과 아유르베다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 문헌적 기원을 살핀 뒤, 역사적 기원으로는 문헌이 등장하기 이전 인더스 문명의 의학과 아유르베다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신화적으로 아유르베다는 창조주인 브라마(Brahma)로부터 유래되었고, 이는 프라자파티와 아쉬윈 쌍둥이 신을 거쳐 신들의 신인 인드라에게

53) 유성욱. 앞의 책, pp.25. 78-79.

전해진다. 이후 내과 지식은 성자인 바라드와자가 인드라로부터 전수받아 푸나르바스 아트레아에게 전하고, 외과 지식은 단반타리가 인드라에게서 전수받아 수스루타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전하였다. 단반타리와 함께 니미도 수스루타에게 외과지식을 전했다고도 한다.

2. आयुर्वेदा와 관련한 최초의 기록이 담긴 문헌은 베다이다. 베다에는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가 있는데, आयुर्वेदा는 사상적 측면에서 모든 베다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정한 약초들이나 특정한 질병들의 치료법과 같은 실제적인 부분은 아타르바베다와 가장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3. आयुर्वेदा에 대한 지식들이 체계화되고 독자적인 경전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브라만시대로, 이 시기에 『차라카 삼히타』, 『수스루타 삼히타』, 『아쉬탕가 상그라하』의 3대 고전이 저작되었다. 이것들은 आयुर्वेदा와 관련된 가장 권위있는 고전들로, 현재의 आयुर्वेदा의 체계는 이 세 고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역사적으로, आयुर्वेदा를 ‘5천년 된 의학’이라고 한다. 이는 기원전 3000년경의 인더스 문명에 이미 의학지식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आयुर्वेदा는 베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베다와 그 문화는 인더스 문명이 쇠퇴한 후 이주해 온 아리아인들의 것이다. 현재로서는 아리아인들이 인더스 문명을 계승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आयुर्वेदा의 시작은 아리아인들의 이주 시기이자 베다의 시기인 기원전 2000~1500년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VI. 감사의 말씀

이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세계 전통의학 연구거점 기반구축 사업-인도, 티벳, 마야, 인디언 전통의학 (과제번호:k10110)” 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참고문헌

1. 계미량. 「아유르베다에서 보는 몸과 마음의 상관성 연구 -Caraka Samhita의 Sarirasthanam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 김진희, 한창현, 김남일. 「아유르베다의 정의와 인도전통 의학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0;23 (1):1-10.
3. 데이비드 프롤리, 수바슈 라나데 저. 황지현 역. 『자연의학 आयुर्वेदा』.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2008
4. 마릴리아 알바네스 저. 이명혜 역. 『고대인도』. 생각의나무. 2003.
5. 박중운. 「고대 인도 의학(AYURVEDA)의 형성과 체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6. 박지명, 이서경 주해. 『베다』. 동문선. 2010
7. 서지영. 「인도 전통의학에 관한 연구-‘아유르베다 (Ayurveda)’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8. 서지영. 『Susruta-samhita-Sutrasthana (수슈르타-삼히타·수뜨라스타나)』의 편역을 통한 'Ayurveda(아유르베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9. 유성욱. 『인도의 역사 I』. 종교와 이성. 2007
10. 이영화. 「아유르베다의 心身관리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1. 정진성, 허은영, 박해련, 허선희. 『테라피스트를 위한 आयुर्वेदा』. BM성안당. 2009
12. 황보종우. 『세계사 사전』. 청아출판사. 2003.
13. Albert S. Lyons, R. Josseph Petrucelli. 저. 황상익, 권복규 옮김. 『세계의학의 역사』. 한울아카데미. 1994.
14. Dominik Wujastyk. 『The Roots of Ayurveda』. New York. Penguin Classics. 2003
15. Gabriel Van Loon. 『Charaka Samhita : Handbook on Ayurveda I』. Chaukhambha Orientalia Publ. 2003.
16. Jan Van Alphen, Anthony Aris. 『Oriental medicine: an illustrated guide to the Asian arts of healing』. London. Serindia Publ. 1995.
17. K. D. SHARMA. "THE CLASSICAL LITERATURE OF AYURVEDA". the World Congress on Medicine and Health titled "Medicine Meets Millennium". Hannover (Germany). 21 July - 31 August. 2000.

18.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9B%94%EC%A7%80>>. [2010. 11. 18].
19.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7a0425a>. [2010. 11. 18]